

“사물의 쿠데타”

—최인호 단편 「타인의 방」의 사물성 재독

윤종환*

요약

최인호의 단편 「타인의 방」은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 현실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평단과 대중 모두의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서울-도시-아파트라는 장소성과 인간 소외, 정체성 상실, 파편화된 개인, 물질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연장선에서 소설의 핵심인 사물화된 주인공과 그 특성도 현실 탈피, 상상적 세계로의 도주, 인간다움의 실패라는 수동태로 읽혀 왔다. 그러나 텍스트를 면밀히 독해해보면 사물은 당대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장치로 기능하지만 않는다. 오히려 사물은 화자의 정념이 투사되는 수동적 대상이자 주체적 지위를 갖춘 능동적 행위자로 동시존재하며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주요 인자이다. 본고는 이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방」의 사물성을 재독한다.

이 소설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주인공의 불확정한 정동을 서사의 중핵(中核)으로 하며, 심연과 같은 그곳을 배회하는 ‘그’가 존재 변이를 반복하는 구조로 쓰였다. 그 양태는 신경질, 비난, 고독, 투정, 무력감, 우울, 두려움, 위안, 안도, 유쾌, 염기(厭忌), 난폭, 고독, 집념, 비애, 맹기, 쓸쓸함, 허무맹랑, 고독, 안심이 순서와 강도를 달리하며 나타난다. 이 변이는 주체가 방 안의 사물들을 마주하면서 관계적으로 형성된다. “아내의 메모”를 중심으로 분기되는 서사의 전반부에서 사물은 주인공의 정념이 투사되는 수동적 존재였지만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공에 말을 걸며 사건을 발생시키는 능동적 행위자가 된다. 방 안의 사물들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주체’들로서 외도에의 심증(心證)과 물증(物證) 사이를 오가는 주인공을 자극하고, 그로 하여금 사물의 비밀—사물의 역사—을 경험케 하며 끊임없이 사건을 촉발시킨다.

*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그 사물들은 아내와 '나' 사이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매개하는 역사적 존재들이기도 하다. 이에 주인공은 아내 외도예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랑에 대한 욕망을 실현코자 감시·목적자이자 사랑의 매개 주체인 사물처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물의 쿠데타"에 투항(投降)한다. 사물화된 주인공은 아내를 마주하지만, 아내는 사물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그것의 역사를 읽는 정동 능력이 약해 '그'의 사물되기는 실패로 끝난다. 주인공이 "사물의 쿠데타"에 기대한 효과로서의 낭만적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비극적 결말은 현대인의 사랑과 연인 관계는 물론 사물 스스로가 말하는 삶의 역사에 감응해 자기 존재를 변이시킬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타인의 방」의 사물성은 도구화된 객체성이나 신자유주의 산업 사회의 단면을 겨냥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을 촉발시키는 능동성까지 내포한 중층적 작용으로 읽히는 것이다.

주제어: 사물화, 사물성, 불확정성, 정동, 낭만적 사랑, 외도, 최인호, 타인의 방

목차

1. 선행연구 검토 문제 제기: 서사 중핵으로서의 정동과 사물들
2. 활유·의인화된 사물: 아내의 부재와 불가능한 사랑의 투사
3. 행위자 사물의 쿠데타: 사물 되기의 욕망과 좌절된 낭만적 사랑
4. 결론 및 의의

1.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서사 중핵으로서의 정동과 사물들

이 글은 소설가 최인호(崔仁浩, 1945.10.17.-2013.9.25.)의 단편 「타인의 방」의 수사를 가까이 읽음(Close Reading)으로써 텍스트에 드러난 사물성을 재독하는 바를 목적으로 한다. 1971년 『문학과지성』 봄호에 처음 발표된 이 작품은 바로 다음 해인 1972년 현대문학사에서 주관하는 제17회 현대문학상 수상작으로 호명되며 최인호에게 영광을 안긴 수작(秀作)으로 평가된다. 이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최인호의 위상이 단편 「타인의 방」 하나만을 대상으로 점쳐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인 작품 세계 혹

은 작가를 다루는 경우에도 이는 결코 빠지지 않는 분석 텍스트로 여겨진다. 2013년 최인호 타계 이후에도 거듭 재조명되고 있는 「타인의 방」은 그 탄생과 함께 한국 단편소설사 구성의 필수조건으로 존재해왔다.

소설 「타인의 방」을 비롯한 초기의 중·단편은 한국의 1960-70년대 산업화 현실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문학과지성』의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은 1970년대 신진 소설가로 최인호를 꼽으며 그의 작품을 집중 조명했고¹⁾, 그들은 ‘도시’, ‘아파트’, ‘서울’이라는 공간과 장소를 구심점으로 텍스트를 비평했다. 그 구심력은 일정한 원주를 그리며 이후 비평·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확대와 심화는 도시-아파트-서울에 연루된 사람들의 ‘소외’, ‘정체성 상실’, ‘파편화된 개인’, ‘물신화’를 개념으로 최근까지 전개(권영민²⁾, 김아영³⁾, 김인경⁴⁾, 노태훈⁵⁾, 박찬효⁶⁾, 서중택⁷⁾, 송은영⁸⁾, 안남연⁹⁾,

1) 김현, 「도시인의 상상력」, 『김현 문학전집 13』, 문학과지성사, 1993. 김치수, 「한국소설은 어디에 와 있는가」, 『문학과지성』 가을호, 1972., 김병익 「60년대 의식의 편차」, 『문학과지성』 봄호, 1974., 김주연, 「산업문명 속의 소외와 복귀: 최인호론」, 『세대』, 1974.6., 김주연, 「70년대 작가의 관점」, 『신동아』, 1974.11.

2) 권영민은 최인호의 소설의 의미를 ‘산업화 과정이 야기한 인간 소외, 문화의 대중화 및 소비주의적 성향으로 빚어진 개인적 삶의 황폐화’로 보았고, 그의 단편은 역사 의식보다는 개인 내면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반면, 이러한 소설적 경향은 일종의 개인적 도피 성향이 라고 한계 지은 바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266-274면.

3) 김아영은 주체의 사물되기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더 이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쿠데타의 주체를 “밤”으로 보고 이는 곧 주체의 자기 반란, 모더니즘이라는 동일성의 횡포에 이성을 초월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방법이라 분석했다.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 김인경은 “주인공은 스스로 사물이 됨으로써 아파트라는 단절된 공간이 주는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같은 소외감을 위로받고 있다. 이는 도구적 합리성에 져버린 자본주의 사회의 한 일면이라 할 수 있”고 했다.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 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289-314면.

5) 평론가 노태훈은 한국 사회에 막 등장하기 시작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주목하며, 자기만의 영역이 아닌 정형화된 구역 즉 ‘누구에게나 있는 공산품’으로 공간과 그 내부의 사물이 주어질 때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묻는다고 했다. 그리하여 「타인의 방」은 “각자의 개성과 주체성은 사라지고 부속품으로서만 기능하는 사물화된 현대인”을

오창은¹⁰⁾, 우찬제¹¹⁾, 이재선¹²⁾, 이평진¹³⁾, 장두영¹⁴⁾, 채호석¹⁵⁾, 최상환¹⁶⁾,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라 했다. 교보문고·노태훈, 「타인의 방」, 공간에 잠식당해 사물화된 현대인의 고독, 최인호의 : 6분 안에 듣는 고전문학 [6분 클래식], 2022.03.31.

<https://youtu.be/JbBOR2v3OxQ?si=XhB8wVNTS2z9lmt8>. (접속일자 2024.06.22.)

- 6)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제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제5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47-278면.
- 7) 서종택은 「타인의 방」을 1970년대 한국소설의 대표격으로 꼽으며 “인간존재의 궁극적 거점인 자기동일성(identity)의 상실”이라 했다. 서종택, 「해방이후 소설과 개인의 인식: 서기원, 김승욱, 최인호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 8)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9) 안남연의 「타인의 방」 연구 키워드는 고독, 소외, 물신화, 단절이다.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현대문예비평연구』 제1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149-167면.
- 10) 오창은의 연구는 “사적 공간의 훼손과 그 극복의 상상력”으로 요약된다.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32집, 중앙어문학회, 2004.
- 11) 우찬제는 「타인의 방」에 대하여 “현대적 삶에서 실존적 소외와 불안이 낳을 수 있는 최대치의 비극을 가늠해 본 소설”이라 평가했다. 우찬제, 「불안의 상상력과 정치적 무의식 —1970년대 소설의 경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119-146면.
- 12) 이재선은 「타인의 방」에 대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집단과 개인 사이의 분절, 가족적 개체의 원자화된 격절 관계를 제시하는 분열형(分裂型; schizoid) 도시소설 혹은 공간의 지역화를 다루는 생태학적 도시소설이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단편이 현대인의 공간 상실 및 공간 소외를 통해 정체성의 상실을 암시하는 소설이라 평가했다. 이재선, 「도시공간의 시학 : 도시화 현상과 도시소설」,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 13)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183-202면.
- 14) 장두영은 “결국 「타인의 방」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은 인물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린 것을 계기로 주인에서 물건으로 전락하는 결말을 통하여 1970년대 초반 물질적 욕망의 급격한 확산을 비판한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장두영,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 『한국학연구』 제69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161-195면.
- 15) 채호석은 「타인의 방」에서 사물화의 악몽을 읽어 내고, 이 소설이 1970년대라는 시간적인 조건을 넘어 보편성이라는 생명력을 획득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채호석, 「억압된 것으로의 귀환—사물화의 악몽을 묘파한 <타인의 방>」, 『문학사상』 3월호, 2000.
- 16) 최상환, 「최인호 단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성윤¹⁷⁾, 황도경¹⁸⁾)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각기 다른 목표로 「타인의 방」을 다루고 있으며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정치하게 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정치·사회·지리·공간의 문제를 중층적으로 다루는 데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50여 년 가까이 진행된 위와 같은 독법에는 한계가 있다. 『문학과지성』의 소위 ‘문지4K’가 만든 작은 눈송이가 자·타력으로 구르며 거대한 눈덩이가 된 결과, 이 독법은 그 눈덩이처럼 비대한 중력과 회전력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대한 눈덩이는 어느 순간 자기 몸집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 눈덩이는 스스로 해체할 가능성을 찾을 수 없으며 거대해진 그 구(球)의 크기로서 다른 존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너무 단단하고 큰 눈덩이는 그 앞에 다가오는 다른 것들을 금방이라도 몽겔 듯한 대상이 되어 외부와 수평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며, 그 위엄을 기준으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있다. 혹은 새로운 주변을 비켜서게 한다.

본고는 「타인의 방」에 대한 기존의 독법의 성과와 의의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스노우볼링(Snowballing)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텍스트의 의미가 1960-70년대 한국 산업사회의 ‘소외’, ‘정체성 상실’, ‘파편화된 개인’, ‘물신화’로만 경화(硬化)되는 것을 경계한다. 주지의 사실이듯 스노우볼링에 기댄 비평과 연구는 주제에의 편이한 접근성, 비용·시간 효율성, 연구자 네트워크 유대 강화라는 장점을 지녔지만 그와 동시에 주제 편향(Topic Bias)과 연구의 일반화를 초래한다. 그 결과 「타인의 방」 독해가 반복됨에 따라 새로운 의미나 독법이 창출되기 보다는, 위 키워드-노드들(nodes) 주위를 배회하는 텍스트의 의미망이 특

17) 최성윤, 「「타인의 방」, 「내 여자의 열매」의 소설 공간과 ‘변신’ 모티프」, 『어문논집』 제99호, 민족어문학회, 2023, 319-338면.

18) 황도경은 「타인의 방」은 도시적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소외와 실존을 다룬 문제적 소설이라 평가했다. 황도경, 「물화의 공포와 유혹: 최인호의 「타인의 방」」, 『문학사상』 3월호, 1999.

정 주제 범주 내에서 키워드 간 연결강도만을 달리하며 형성된 것이다. 이 배후에서 소설의 결말이며 핵심인 화자의 사물화 현상을 탈피, 도주, 실패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어쩌면 당위적인—해석이며, 인간으로부터 사물로의 방향을 성공으로부터 실패라는 유비 구조로 고착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하다.

본고의 관점을 일정 수준 공유하며 소설을 다른 관점에서 보려는 선행 연구도 소수 있었다. 김종욱¹⁹⁾은 소설의 정치적 무의식에 주목하며 초점 화자의 사물화를 면밀히 살폈는데, 그는 사물화를 초현실·형이상학적 인과율이 아닌 사내의 무의식에 따른 심리적 인과율로 독해했다. 이때 작품 배경인 아파트는 초점화자의 무의식적 공간으로 치환되고 사물은 사내의 분신이 된다. 그리하여 사물은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존재가 된다. 아파트는 방은 세계의 질서에 저항하는 예술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 관점을 수용하는 김지윤은 「타인의 방」의 결말에서 화자가 사물화되는 양상을 고립·소외·정체성 상실로 해석한 연구사를 비판하며 ‘사물되기’를 현실-대자타 논리로부터의 탈주로 해석하고 사물에 내재된 탈주의 힘을 보았다.²⁰⁾ 이때 사물은 “권력으로부터의 전복을 획책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해석된다. 염수민 역시 사물로부터 어떤 존재성을 포착해내는데²¹⁾, ‘적대적 더블’ 개념으로 최인호의 문학을 살핀 그는 「타인의 방」의 사물이 화자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내부에 화자의 모습이 존재하는 객체며, 바로 그 사물과의 공존으로 인해 사적 공간의 안정성을 잃는 게 소설의

19) 김종욱,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환상과 정치적 무의식: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관악어문 연구』 제38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205-222면.

20) 김지윤,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5-88면.

21) ‘적대적 더블(hostile double)’은 “자신과 닮았음에도 그 대상이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섬뜩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가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언캐니, 오토 랑크의 더블 이론을 참고해 고안한 개념이다. 염수민, 「최인호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 분열 양상에 대한 수사학적 연구 - 공간 분열 양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특징이라 분석했다. 이들 연구에서 「타인의 방」의 사물은 화자/작가가 심리를 투영한 대상이지만 투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신’, ‘현실 전복 주체’, 공간의 불확정성(Uncertainty)을 촉발하는 ‘행위자’로 존재하며 이는 상당히 징후적인 공통이다.

이 맥락에서 한 걸음만 달리 나아가 서사적 배경이 현실인지 환상인지의 판단을 잠시 미룰 때, 텍스트에서 사물이 화자의 투사체로 존재하는 수동적 양태와 주체적 지위를 갖고 행위하는 능동적 양태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양태에 의해 화자의 정념(Passion)이 동요되는 정동적(Affective, 情動的) 양상은 「타인의 방」을 읽는 또다른 맥락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는 텍스트에 보다 친착하여 이 특징을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²²⁾

실제 텍스트에서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드러나는 바는 화자가 사물을 마주할 때 변이되는 정념과 그 신체적 양태이다²³⁾. 소설 도입에서부터 화자는 아내가 자신을 환대하며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며 “탄력 있는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누”른다. 응답이 없자 “분노”와 “초조”를 느낀다. 그는 사람 없는 방 “거울 속 자기를 향해 맹렬한 욕을 퍼붓”다가 “심한 고독”을 느끼고, 이내 “쉴 새 없이 투덜”거린다. 그리고 “이빨 없는 사람이 잇몸으로만 호두 알을 깨려는 듯한 무력감” 다음으로 “우울하게 서서” 그 “무력감이 발끝에서부터 자기를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다 아내가 씹던 껌을 보고 그것을 입에 넣어서는 “껌이 그를 유일하게 위안해” 준다

22) 본고에서는 단편 「타인의 방」을 아주 가까이 읽기 때문에 통상 논문에서 표기하는 직접 인용(“ ”) 텍스트의 면수 표기는 너무 많은 관계로 생략한다. 다만, 이 글은 소설의 서사적 흐름을 순행적으로 따라가며 읽기에 직접 인용 없이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23) 정동(情動, affect)은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을 뜻(스피노자)하며 마주침에 의한 상호작용(to affect and be affected)을 그 특징으로(브라이언 마수미) 한다.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3부 「정의」, 서광사, 2007.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참고.

고 감각하며 집을 “즐겁고 아늑한 곳”으로 생각한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를 발견하고는 “아주 유쾌”해지다가 돌연 “근질근질한 염기”를 느낀다. 이에 “난폭하게 일어나서” 욕실로 향해 그곳에서 “엄청난 고독”을 느끼는가 하면, “사납게 소파에 누워” 스폰을 “집요하게” 저으며 “비에를 느낀”다. 다시 “맹렬한 기세”로 스위치에 불을 넣고, “아주 쓸쓸하고 허무맹랑한 고독감”을 느끼다가 어느새 “안심”한다.

텍스트가 고스란히 보여주듯 이 소설의 서사는 주체의 신경질, 비난, 고독, 투정, 무력감, 우울, 두려움, 위안, 안도, 유쾌, 염기, 난폭, 고독, 집념, 비애, 맹기, 쓸쓸함, 허무맹랑, 고독, 안심이라는 다양한 정동이 그 순서와 강도를 달리하며 전개되는 식이다. 문학에서 특정 정념이 형식 전체 즉 더 크고 질서정연한 미적 체계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서사의 장르 양식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때²⁴⁾, 「타인의 방」은 짧은 분량임에도 화자의 정념을 특정할 수 없는 ‘불확정성’을 그 중핵(中核)으로 하며 그 심연을 배회하는 기표의 미끄러짐을 반복해 서사를 구조화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의 서사는 중층화된 정동의 불확정성, 그 변이가 구성해가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자의 정동이 그 스스로에 의해 자생적으로 촉발한 것이 아니라 사물들과의 마주침에 의해 관계적으로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때 이 관계는 우연과 필연을 동시에 내포한다. 달리 말하면 관계란 ‘그/사내’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는 주체에 의해서도 요청되는 사건이며, 사물 또한 인간과 동시 주체이자 객체라는 인식을 저변에 둔 것이다. 텍스트 후반에서 “친구여,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라며 동질적 관계를 제시하는 주체는 사물이며, 화자에게 “방 벽면 전기다리미 꽂는 소켓의 두 구멍”이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중대한 쿠데타”가 시작된다. 보다시

24) 하버드대학교 영문학 교수 필립 피셔(Philip Fisher)는 정념(passion)이 곧 서사 문학의 장르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비가(Elegy)는 애도/슬픔에 의해 결정되는 문학 양식이며 고딕소설은 공포가 형성한 양식이라는 예를 그의 근거로 들 수 있다. 필립 피셔, 백준걸 옮김, 『열정에 대하여』, 엘피, 2023, 29면.

피 행위자는 분명 사물이다. 그러나 텍스트 초반의 사물은 행위자로서 존재하기보다는 화자의 정념을 촉발하는 인자로서, 활유/의인화(육살: “위생적인 정육점 같아 보였다”, 아내의 머리칼 “살아 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육조: “진저리를 치기 시작했고”, 구정물: “입맛 다시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샤우어: “샤우어의 모가지는 사형 당한 사형수의 목처럼 꺾이어서 매우 진지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단편의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사물의 행위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그 행위의 증대로 말미암아 사물의 서사적 지위가 우연으로부터 필연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자 사물의 서사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것은 또다른 사물: “아내의 메모”이다. 이 소설에는 아내의 메모가 총 세 번 등장하는데, 각각 ①방에 들어온 직후, ②샤워를 마고 나와 자신이 가구 같은 정물로 보일 때, ③화자가 사물이 된 후 방에 들어온 아내가 같은 내용의 메모를 남길 때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점②가 사물의 행위가 증대되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때부터 화자의 부정적 파토스는 폭발적으로 분출되며, 그 파토스에 의해 화자의 행위에도 신경증적·강박적 변화가 세차게 일어난다. 이때부터 “사물의 쿠데타”가 모의되고 화자의 행위는 “검사한다”, “조사한다”, “발견했다”,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관찰하였다”, “검사하였다”, “털어도 보았다”. “들여다보았다”로 제시되며, 사물은 “예사의 물건”도 “어제의 물건”도 아니게 되어 그를 “공범자”로 만드는 사물화에 이르게 한다. 이 분기점 ②에 따리를 들고 있는 정동이 바로 “염기(厭忌)”인데, 그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자의 존재 변이와 관련 깊다(“그는 근질근질한 염기를 느낀다. 나는 안다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의 부재는 당신 스스로가 아닌 사물에 의해 말하여진다. 즉, “아내의 메모”는 언표된 것과 언표되지 않은 것을 동시매개하는 사물이며, 소설에서 화자와 우연적으로 만나(①), ②다 끝내 필연으로 만나게 되는(③) 객체이자 서사를 주도하는 발화 행위자로 갈마든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방」의 사물은 아내와의 관계 및 아내의 외도에 대한 신경증적 주체의 분열을 가속시키며, 사랑하는 대상의 외도에 관한 심증(心證)과 물증(物證)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의 불확정한 정동의 심연(深淵)을 끊임없이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물은 끊임없이 그 배후를 건드리고 표지하며, 주제로 하여금 그 사물의 비밀—사물의 역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케 한다. 추후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화자가 들어선 방은 외도의 공간이자 외도자의 공간이며, 그곳의 사물은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외도를 “감시”하고 목격한 주체들이다. 동시에 아내와 ‘나’ 사이의 사랑을 같이 ‘경험한’ 존재들이다. 이 관계에 가담하는 사물행위자가 되고 싶었던 화자의 사물되기는 선택된—혹은 욕망의 정동에 의해 추진된(Driven)—것이며, 불완전한 애정의 발로이자 필연적인 결과였다. 앞서 문지4K의 독법과 그 영향에 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지만, 평론가 김현이 “1971년 최인호에게 비친 아파트의 방은 인간까지도 물건으로 존재하지만, 그 물건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물령주의적인 방”²⁵⁾이라고 의미심장히 남겨둔 문장은 꺼내볼 만하다. 감시자/목격자로서의 사물에는 화자가 결코 만난 적 없는 아내를 본 사물만의 역사와 경험, 즉 그곳에 있음으로서의 삶이 달리 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타인의 방」의 사물성을 다시 읽음으로써 지금까지 현대 산업화 시기 물질만능주의하(下) 인간소외의 독법으로만 비대해진 한 스노우볼에 작은 화염의 축(鐵)을 날리는 바이다.

2. 활유·의인화된 사물: 아내의 부재와 불가능한 사랑의 투사

거듭하건대 이 소설은 짧은 분량 안에서 화자의 정념을 특정할 수 없

25) 김현, 『김현문학전집 13: 김현예술기행/반고비 나그네 길에』, 문학과지성사, 1993, 205면.

는 정동의 ‘불확정성(Uncertainty)’을 그 중핵(中核)으로 하며 마치 심연과 같은 그곳을 배회하는 기표의 미끄러짐을 반복해 서사를 구조화한다. 그 뼈대가 되는 사건은 외도하는 ‘아내’의 존재를 의식/무의식적으로 염두에 둔 화자의 정동과 그 불확정성의 변이이다. 그리하여 소설의 시작은 출장에 다녀오느라 “피로해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가 아파트에 도착해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문을 열고 다소 호들갑을 떨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맞아주기를”이라며 “초인종”을 누르는 데서 시작한다. 거기에 당도하기까지 그는 “방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한 사실을 “운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내와의 만남만을 맹목했었다²⁶⁾. 그러나 초인종 너머로 응답이 없자 그는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누르기” 시작한다.

아내가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아내가 외도 중이라 짐작하는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 국면이 그의 경험을 매개로 펼쳐진다. 그는 “초인종이 고장난 것이 아닐까”하다가도 아내가 “혼자서 술이나 먹고, 그리고는 발가벗은 채 돌아떨어졌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때 그에게 상기(想起)된 아내의 목소리는 “나는 잠이 들어 버리면 귀신이 잡아가도 몰라요”이다. 언표상 아내의 말은 잠을 깊이 자는 사람의 한 특징이며 그 일반적 언사(言辭)로 여겨지나, 서술자가 이를 “장점인 것처럼 자랑”하는 듯이 여겨버리고선 “분노”하는 이유는 이미 화자에게 ‘아내-술-발가벗음-잠들어버림’이라는 매커니즘의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술-발가벗음-잠들어버림’으로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열쇠로

26) 이 소설의 화자 ‘그’를 ‘가부장적 인물’로 해석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본고의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예술 형식에 대한 비평적 읽기의 과정에서는 그를 ‘가부장적 남성 인물’로 전형화된 결론을 텍스트의 선형으로 작동시키기보다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과 그 행간에 존재하는 여러 욕망의 심급을 읽어 서사-텍스트를 입체화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추후 밝혀나갈것이나 글의 극초반부에서 “시금치 꿰이는 뱀새”처럼 환유적으로 상상된 가정적 아내 상(象)이 아내의 외도로 좌절되고, 그리하여 분출되는 여성혐오—“그는 마땅히 더운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어야 했다”, “아내의 하체에 작구가 달린 모습”—의 정동적 양상은 그 양상의 변이 구조 자체 역시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않기에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자 그 대상이다.

방문을 열 수 있”겠지만, “초조하게” 벨을 계속 누르는 것이다. 아내가 외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늘 아내라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는 부재한다. 이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아내된 도리”나 “남편의 권리”와 같은 사회문화적 관습과 남성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불안을 인식론적 자위(自慰)로 부분 해소한다. 인간은 불확실·예측불가능으로부터 기인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인식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때 정당화 수단에는 통상 이념에 대한 직접 지지, 기존 관습 및 권위의 정당화가 수반된다²⁷⁾. 여성에 대한 인식론적 판단 역시 아내의 외도에 대한 주체의 정동적 불확정성으로부터 추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마치 ‘이웃’과 같이 상정되는 “과자마를 입은 사내”가 등장하는데 사내는 소설의 전체 핵심 플롯을 고려할 때 결코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자마를 입은 사내”와 이웃들은 그의 불확정적 정동에 큰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내는 “이 아파트에 거의 삼 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라며 문을 두드리기만 하는 화자를 의심하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사뭇 경계하는 듯한 숙돌 같은 얼굴”을 한 여타 이웃들처럼 그를 아파트 ‘침입자’ 정도로 가늠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들의 의심에 화자는 “증거를 뵈 주겠소”라며 “방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게 됨으로써 화자가 “방”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문밖에서 촉발한 외도에 관한 심증(心證)을 강화하고 물증(物證)으로 관계맺도록 하는 사건의 장(場) 속으로 중심 인물이 ‘배치’된다. 그 이후부터 아파트 주민들은 소설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종의 수사적 맥거핀(Macguffin)²⁸⁾으로서 중심 사건의 동기를 부여한 후

27) 다음 책의 1-4장을 참고할 수 있다. 존 T. 조스트, 신기원 옮김, 『체제 정당화의 심리학』, 에코리브르, 2024.

28) 맥거핀(Macguffin)은 이야기의 전개에 사용되는 수사 장치 중 하나로, 이야기에 ‘동기’를 부여하고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줄거리에서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고립, 무관심, 소외,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소설의 핵심과 관계 없는 주제를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 보이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근거로 하여 이 소설이 1960-70년대 도시-아파트촌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제시한다는 분석은 소설의 부차적인 요소를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장치로 확대해석했다는 여지를 둔다. 이 소설의 서사는 정동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방 안에 진입한 화자는 그곳에서 우연히 “화장대 거울 아래 무슨 종이 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남긴 메모였다. 이 소설에는 아내의 메모가 총 세 번 등장하는데; 각각 ①방에 들어온 직후, ②샤워를 마고 나와 자신이 가구 같은 정물로 보일 때, ③화자가 사물이 된 후 방에 들어온 아내가 같은 내용의 메모를 남길 때이다. 화자는 제①국면에서 메모를 마주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극심한 정동적 변화를 겪는다.

그는 울분에 차서 한숨을 쉬면서, 발소리를 쿵쿵 내면서, 한없이 잠겨 들어가는 피로를 느끼면서, 코우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는 일관 작업을 매우 천천히 계속하였으며 그리고는 거의 경직이 되어 뻣뻣한 다리를, 접는 나이프처럼 굽혀 바지를 벗고 그것을 아주 화를 내면서 옷장 속에 걸었다. 그때 그는 거울 속에 주름살을 잔뜩 그린 늙수그레한 남자를 발견했고, 그는 공연히 거울 속의 자기를 향해 맹렬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제길혈. 겨우 돌아왔어. 제길혈. 그런데두 아무도 없네. 그는 심한 고독을 느꼈다 ... 중략 ... 트랜지스터는 끄지 않고 나간 탓으로 웅윙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껐다. 아내의 옷이 침실에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고, 구멍 난 스타킹이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다리 안쪽을 조이는 고무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루우즈 뚜껑이 열린 채 덩굴고 있었다 ... 중략 ... 그는 설 새 없이 투덜거렸다. 그는 마땅히 더운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어야 했다. 그뿐인가. 정리된 실내에서 파이프를 피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감상자의 주의를 끄는 일종의 트릭이다.

물고, 음악을 들어야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운 나쁘게도 오늘밤 혼자인 것이다. (66-67면, 강조는 인용자)

메모를 마주하자마자 화자는 “울분”, 탄식의 “한숨”, “발소리를 쿵쿵”내는 분노, “피로”를 느끼며 동요된다. 그때 본 “거울 속”의 자신은 “주름살을 잔뜩 그린 늙수그레한 남자”처럼 보이고, 이내 “공연히 거울 속의 자기를 향해 맹렬한 욕을 퍼붓기 시작”하며 자기 혐오까지 한다. 그리고 이내 “고독”해진다. 문체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감정선의 변화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 중이며 아내에게 자신이 더는 매력 있는(Sexual) 남성으로 보이지 못한다는 자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침실에 “너저분하게” 벗어 놓은 옷, 소파 위 “구멍 난 스타킹”, 탁자 위 “다리 안쪽을 조이는 고무줄”, “열린 채 덩굴고 있”는 “루우즈 뚜껑”은 아내의 외도를 끊임없이 상상케 한다. 이 사물들의 ‘배치’는 계속해서 화자에 말을 걸며 사물이 역사와 이야기를 갖춘 행위자로 기능케 한다. 그러나 사물-타자의 진실에 가닿을 수 없는—아내의 부재가 야기하는 정동적 심연의—주체는 “쉴 새 없이 투덜거릴 뿐이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화자는 또다시 “마땅히 더운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어야” 한다거나 “정리된 실내에서 파이프를 피워물고, 음악을 들어야 했을 것”이라며 중산층 가부장으로서의 체제·지위를 정당화한다. 앞서는 아내 만나기를 기대하며 아파트로 향했던 화자가 “방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해 혼자였던 사실을 “운 좋”다고 한 반면 방 안에서 “오늘밤 혼자”인 데에는 “운 나쁘”다고 여기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변화라 하겠다.

한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사랑’에 대한 “정상적 태도”는 애정적 성향과 육욕적 성향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가능하다.²⁹⁾ 애정적 성향은 어

29) 기초 정신분석학의 맥락에서 ‘사랑’에 관한 리비도적 풀이는 다음의 것을 참고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 프로이트 전집9』, 열린책들, 1997, 163-165면.

린 시절에 자기 보존 본능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형성돼 가족 구성원 중 자신을 돌봐 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전이되는 돌봄 주체어로 향한다. 그리고 이 애정이 성적 본능과 연관되어 진행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기초적 진단인바, 애정적 성향은 육욕적 성향과의 원만히 접합되어 사랑이라는 사회적 관계로 승인돼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리비도의 발달과 흐름을 방해하는 첫 요인으로 ‘리비도를 투여할 대상을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를 꼽는다. 이 상태에서 주체의 신경즉적 분열과 우울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면 아내가 외도한 상황은 남성 화자의 리비도를 투여할 대상이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이 방에 아내는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리비도를 투여할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상태로 이해된다. “이빨 없는 사람이 잇몸으로만 호두 알을 깨려는 듯한 무력감”은 그 간극과 불일치에 대한 환유이며 육욕적 성향 없는 사랑의 단면을 암시하는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부재하는 아내의 흔적(“아내의 머리카락”)이 있는 욕실에 가서 거울에 붙어있던 아내가 씹던 껌을 떼어 입에 넣고 “향기가 빠져 야릇하고 비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좀 후엔 말랑말랑해졌다”며 “유일하게 위안”을 찾는 과정은 자연스럽다. 어찌면 본능적이다. 화자는 “집이란 즐겁고 아늑한 곳”이라며 행복해하는 듯하나,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행복은 ‘껌’ 씹기라는 구강충동 해소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행복은 충만한 만족으로부터 우회된 정동값이다.

정신분석 실천의 오래된 명제이듯 상실된 대상과 그 부재는 주체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의식과 그 심연을 배회하며 우울의 정동을 느끼게 한다. 화자는 다시 “키 큰 맨드라미처럼 우울하게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는 샤푸어”를 응시한다.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육욕적 성향이 채워지지 않아 샤푸어는 “사형 당한 사형수의 목처럼 꺾이어져” 있는 듯 보인다. 그는 우울을 억압하고자 “껌을 질경질경 씹으며 사나운 비비다 속”으로 뛰어들며—샤워를 시작하며—“춤의 신발을 신어 버린 소녀처럼 내건거리면서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축”을 즐긴다. 이는 탈락된 성욕과 실패한 리비도의 전이를 샤워 중 자위(自慰)로 갈음하는 미봉책의 반복이다. 샤워 중 “그의 성기가 막대기처럼 발기해서 힘차고 꼳꼳하게 피어오르는 것”은 불충분하고 순간적인 만족에 불과하다. 그는 “물을 잠그고 몸을 정성들여 닦”자마자 “심한 갈증”을 느낀다. 방으로 돌아와 주스를 마시고 음악을 틀며 다른 만족을 우회하려 시도하지만, 그때 켜 스탠드 불빛은 “온 방안을 우울하게 충전”시킨다. 끊임없이 우울에 둘러싸인 화자는 “마치 천장 위에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가구 같은 정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소설의 전반부는 아내의 부재와 불가능한 사랑이 추동하는 정동의 ‘불확정성’이 서사를 이끌어왔다. 화자는 그 자장에서 마주하는 사물에 의해 정서·신체·관념 상의 변이를 경험한다. 이때 방 안의 사물들은 그 배치의 효과로서 서사와 화자의 심리를 능동적으로 형성하지만, 그 행위 능력이 증대된 분명한 행위자라기보다는 화자의 정동을 동시매개하는 활유·의인화의 객체로 등장한다. 애정과 성욕이 조화롭지 못해 ‘사랑’에 실패하는 화자에게는 끊임없이 변주된 우울이 경험되는데, 이 경험에는 그의 정물성(靜物性이면서 情物性)이 매개돼 있다. 이 정물성은 “아내의 메모”를 한 번 더 우연히 마주하게 됨으로써 텍스트 상 사물성의 급격한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를 서사 분기점(㉒)이라 명명할 수 있다.

3. 행위자 사물의 쿠데타: 사물 되기의 욕망과 좌절된 낭만적 사랑

이 소설의 서사를 이끄는 주체가 정동혹은 정념이라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자생하는 독립된 개체 또는 유기체가 아니다. 정동은 형언불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나 형언 가능하고 감각 가능한 존재를 매개해 자기 존재성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상리공생적(Mutualistic, 相利共生的)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정신분석 실천에서 역시 상실(Loss)과 공백

(Void)은 그 자체로 현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의식의 차원에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의 표지를 우회하며 그 존재를 가늠케 하는 영역이다. 그것은 절대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존재를 증명하는 역설을 껴안았던 점에서 존재의 심연(深淵, Abgrund)으로 불린다. 「타인의 방」의 서사에서 외도하는 아내의 부재와 그 상실, 이로부터 비롯된 불확정 정동의 중층이 화자의 존재를 끊임없이 흔든다. 그러나 그 의미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아내의 외도 사실을 명확히 확인/부정할 수 없고 사랑이 불가능한 근본적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아 해결할 도리가 없어 문제를 타자에게 전가하지만 그 책임 주체인 타자는 영원히 마주할 수 없는 부재 상태인—화자는 정동의 주체이지만 정동의 심연에 다가갈 수 없는 객체이기도 하다. 자기 존재에 내재하는 이 타자성을 인식(“그는 마치 천장 위에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부동의 자세로 누워 있다. 때문에 그는 가구 같은 정물로 보인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동적 존재의 자기 타자성이 존재성의 한 국면이라면, 그 면과 배를 대는 또 다른 사물의 존재와 그 접면(接面)이 일으키는 정동적 동요와 변이는 주체의 이성·의식과 관계없이 주체의 신체와 관념을 변이시킨다. 서사 분기점 ②에서 불현듯 “그의 눈엔 화장대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가 들어”오는데, 화자는 갑자기 “아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는 것’은 오로지 메모, 아내 바로 당신이 아닌 메모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거짓말의 주체는 엄연히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메모”이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성에 의한 사실판단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 부재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정동적 동요와 그 서사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분기점 ②에서부터 화자의 정념이 폭발하며 사건이 급격히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순간 그에게 말을 건 주체는 “아내의 메모”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타인의 방」의 사물들은 주체의 감정이 투사된 객체로부터 ‘말하고 행위하며 관계를 맺

는 타자로서의 주체로 변화를 맞이한다.

이 곡점에서 형성된 정념은 “근질근질함 염기”이다. 염기(厭忌)는 ‘싫어하고 꺼림’으로 압도된 정념을 표지하며 그 근원적 대상은 아내이지만 이 정념을 분출할 대상은 없다. 이 환원불가능한 정념의 축적은 불안의 자기장 속에서 그 폭과 너비를 넓혀오며 거대한 과도처럼 자아를 집어삼킨다. “아내의 메모”를 마주하며 강렬해지는 염기는 그를 분노에 휩싸이도록 한다. 화자는 욕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난폭하게 일어나서” 욕실 쪽으로 가고, “제길혈”을 반복하는가 하면, “벽 사이의 눈을 의식”하며 “사납게 소파에 누워” 설탕물의 스푼을 “집요하게 젓는다. 필립 피서에 따르면 문학에서 분노는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며, 최종적으로 그 발견은 구체적인 논리적 형식을 만든다.³⁰⁾ 이 정념에 압도된 주체는 대상에 집중하며 그만의 언어 형식을 만드는데, 이때 사유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다.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이 사물에 대해 무언가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물 자체가 사람 안에서 자신에 대해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³¹⁾ 그 징후는 스푼이 “비늘 번뜩이는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며 “산 생선을 만질 때 느껴지는 뿌듯한 생명감과 인간힘의 요동으로 충만”하는 식이다. 그리고 다른 사물들까지 “일체히 흔들거리면서 흥을 돋우기 시작”한다.

이제 사물은 본격적으로 내력(內力)과 내력(來歷)을 갖고 행위하기 시작한다. 사물들은 중지와 행위를 거듭하며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화자를 섬뜩하게 한다. 빌렘 플루서는 사물들의 섬뜩함은 사물들의 일상성과 익숙함이라는 두터운 지층들로 덮여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지층들을 걷어내

30) 필립 피셔, 백준걸 옮김, 『열정에 대하여』, 엘피, 2023, 19-20면 참고.

31) “한 사물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서 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이다.”라는 문장이 이와 같이 변주된 것이다. 스피노자, 강영계 역, 『신과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관한 짧은 논문』, 서광사, 2016, 149면.

는 노고를 거쳐야 비로소 채굴된다며, 이 사유에 시간성이 개입될 때 주위의 사물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간적 정황만 이루고 있다고 했다.³²⁾ 이때 사물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움직여지며 주체의 주위와 정황도 계속하여 변동한다. 그리하여 주체는 늘 다른 정황 속에 살아야만 하고³³⁾, 언제나 새로운 조건이 발생한다.

방안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둠과 어둠이 결탁하고 역적 모의를 논의한다. **친구여,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방모퉁이 직각의 앵글 속에서 한 놈이 용감하게 말을 걸어온다. 벽면을 기는 다족류 벌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옷장의 거울과 화장대의 거울이 투명한 교미를 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 뜬다. 벽이 출렁거린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방 벽면 전기다리미 꽃은 소켓의 두 구멍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친구여, 귀를 좀 대 봐요. 내 비밀을 들려줄게.** 그는 그의 오른쪽 귀를 소켓에 밀착한다. 그의 귀가 전기 금속 부분품처럼 소켓의 좁은 구멍에 접촉된다. **그러자 그의 온몸이 고급 전기콘로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그의 몸에 스파이크가 일고, 그는 온몸에 충만한 빛을 느낀다.**

잘 들어요. 소켓이 속삭인다. 마치 트랜지스터의 이어폰을 꽂은 목소리처럼 그의 목소리는 콧가에만 사근거린다. **오늘 밤 중대한 쿠데타가 있을 거예요.** 겁나지 않으세요.

그는 불을 켜 채 화장대로 다가간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키가 크고 낮은 모든 화장품을 열어 **검사한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그 안에 가지런히 빈 그릇들, 성냥통, 촛대, 옷장을 열어 말리우는 바다 생선처럼 걸린 옷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도 **검사한다.** 옷들은 좀 껌찜했지만 안전하게 **주머니를 털어 보인다.** 그는 **하나하나 보리라고** 다짐한다. 서랍을 뒤져 남은 물건도 **조사한다.** 그러다가 이미 건조하여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32) 빌렘 플루서, 김태희·김태환 옮김, 『사물과 비사물』, 필로소픽, 2023, 8면.

33) 빌렘 플루서, 앞의 책, 13면.

듯한 낙엽 몇 송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에게 지난 가을을 생각키우게 했고 그는 잠시 우울해졌다. 그는 사진틀 속의 퇴색한 사진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책상에 꽂힌 뚜껑 씌운 책들도 **관찰하였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석유곤로로 심지도 **관찰하였다**. 덮개가 있는 것은 그 내용물을 **검사하였으며** 침대도 **들어서 털어도 보았다**. 심지어 번기도 **들여다보았고**, 창 틈 사이도 **들여다보았다**. 물건들은 잘 참고 세금 잘 무는 국민처럼 압전하게 그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들여다보는 물건은 본래 예사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어제의 물건이 아니었다.** (73-75면,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방 모퉁이의 직각의 앵글”은 “친구여,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라며 화자에게 말을 건넨다. 그 말 걸기(Addressing)는 통상 초면인 사람에게 거는 말문 트기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미 그곳에 살고 살아왔던 존재가 “귀를 좀 대봐요, 내 비밀을 들려줄게.”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방식이다. 즉, 사물은 ‘그곳에 있음’만으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객체가 아니라 공간과 그 내부의 역학(力學)에 관한 경험과 역사를 지녔으며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들은 친구를 권유할 자격을 보유했다. 이들 사이에 정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양의 차로 정보가 흐르는 순서가 생긴다. 그로써 ‘그’는 청자가 되며 기존의 관습적 관계는 전복된다. 화자는 “소켓의 좁은 구멍”에 귀를 대고 이 방의 진실과 역사를 들을 뿐이다. 그때 “온몸이 고급 전기곤로처럼 달아오르”고 몸에 “스파이크가 일고” “충만한 빛”을 느끼는 것은 사물의 발화로부터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됨을 보여준다. 이제 이 주체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 다른 존재됨이 “사물이 쿠데타”의 목적이자 효과이다. 우선 화자는 방안의 거주자이자 아내를 기다리는 자, 사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변모한다. 방 안의 삶과 역사를 지닌 사물로부터 정동된 그는 이제 적극

보고, 찾고, 검사하며, 관찰한다. 인용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감시”, “검사”, “털어 보기”, “관찰”, “들여다보기”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아내와의/아내에 대한 ‘사랑’을 찾기 위함이다.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듯한 낙엽 몇 송이”를 보고 “잠시 우울”해지는 것은 방안의 사물이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오래된 충만한 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의 기억은 ‘그’나 ‘아내’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서랍” 속, 즉 사물에 있었다. 이내 화자가 “한층 더 깊은 피로를 느끼면서” “아주 쓸쓸하고 허무맹랑한 고독감”을 느끼는 것은 ‘증거’도 ‘사랑’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 오직 사물에게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화자가 그 사물의 배치 속으로 진입해들어가는 「사물의 쿠데타」; 사물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는 벌거벗은 채 온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 중략 ... **그는 꿈 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 중략 ... 그는 채 못 미처 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 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다음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고도 생각했었지만, 놀란 가슴을 누르며 온 방안을 조심히 살피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새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잊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자 안심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잊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

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줌 뺏하긴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었다. 허지만 나 중에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방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메모지를 찢어 달필로 다음과 같이 써서 화장대 위에 놓았다. (76-78면, 강조는 인용자)

아내의 외도 증거와 아내와의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방안의 사물처럼 되는 것이다. 분노에 휩싸여 있던 화자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어 결국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감각케 한, 그리하여 정념의 강도를 분노로부터 우울과 고독으로 변이시키는 힘을 가진 사물처럼 되는 것이다. 사물이 수행하는 비이성적·비논리적 “쿠데타”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 낭만적 사랑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끼며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저항하지 않는다. 그에게 사물되기는 필연이었으며 필연에 의해 요청된 것이었다. 쿠데타가 적(敵)으로 상정한 대상의 죽음을 목적하거나 대상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방식만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상 ‘배치’를 바꾸는 작업이라 할 때³⁴⁾, 자기 존재와 아내의 ‘관계’를 ‘재배치’하는 과정으로서의 “쿠데타”가 욕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부활”을 꿈꾸었다. 이제 사물처럼 되어버린, 아내와의 관계의 역

34) 김중욱의 경우 이 “쿠데타”를 두고 “부정한 아내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정치세력과 중첩되며, ‘그’ 역시 정치적 무기력성에 빠진 중산층 남성으로 확장되는 것”이라 했고, 사물화된 ‘그’는 “아내 혹은 부정한 현실 속에서 주체성을 박탈당한 중산층 남성의 ‘분신(alterego)’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선 이 텍스트에서 아내는 결말의 한 장면 외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자가 아니하기 때문에 ‘권력을 찬탈한 정치세력’으로 볼 수 없고 화자가 아내를 그러한 대상으로 투사해 보는 근거도 불충분하다. 또한, 사물화된 ‘그’가 갖는 ‘사물성’ 역시 아내에게 발견되기 전과 발견된 후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아내가 사물화된 그를 마주하기 전에는 ‘그’가 스스로 쿠데타에 투항하여 관계의 배치를 피하는 능동적 사물이었던 반면 아내에 의해 버려지는 사물로서의 ‘그’는 그 욕망이 좌절된 수동적 사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는 시시각각 심리, 정동 요인에 의해 사물, 인물 간의 배치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면밀히 고려하여 봄이 타당하다.

사물 스스로 몸에 지닌 사물이 된다면 아내 역시 그 사물을 마주하여 추억에 정동되리라 꿈꾼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다음 날”—시간을 지시하는 “다음 다음 날”은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서야 아내의 말이 메모의 말과 동일시되며 곧 거짓이었음을 알려주는 수사적 장치—이 되어 방 안에 아내가 들어왔지만, 아내는 화자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한다.

이 소설의 결말은 ‘사랑의 낭만성’ 혹은 ‘낭만적 사랑’이 실패하는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내는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매우 좋아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그 사물에 내재한 추억을 더듬는 듯하다.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뿜하긴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리고 ③ 세 번째 메모를 남겨 사실 상 위도가 진실임을 확증하며 소설에서 퇴장한다. 이러한 결말은 ‘사랑의 낭만성’ 혹은 ‘낭만적 사랑’의 실패를 보여주는데³⁵⁾, 통상 낭만적 사랑은 그 행위 주체들 간의 정동적 교류가 상호충만한 상태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말미에서 아내는 교환가치를 중시하며, 사물로부터 결코 정동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동이 서사를 이끌어 오며 그 형식을 이루는 바를 고려하면, 정동적 행위 능력의 없음/결핍은 이 소설을 낭만적 사랑의 실패요 비극으로 만드는 필요충분 조건이라 하겠다.

35) 김진기는 최인호 소설에 내재한 가족주의를 연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최인호 소설에는 아버지를 잃거나 아버지가 부재하는 ‘버려진 아이’가 가족주의를 내면화 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때 박정희 시대 국가 주도의 핵가족화 현상과 전통적 관습으로서의 대가족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그의 소설에도 반영되는데, 이때 인물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되면 안전하고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욕망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욕망 자체의 불완전한 핵가족화의 한 위기인 ‘부부의 위도’로 그 모습을 달리해 출몰하며, 이는 그가 욕망하는 안정적 가족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작동한다. 이에 최인호 소설 곳곳에는 그 ‘위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낭만적 사랑’을 쫓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 김진기의 연구이다. 김진기는 「타인의 방」에도 그러한 흔적이 드러난다고 짚은 바 있다.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가족주의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21, 295-335면.

4. 결론 및 의의

지금까지 최인호의 단편 「타인의 방」을 면밀히 읽으며 서사의 핵심인 정동과 사물이 작품을 관통하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소설은 화자의 정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동의 ‘불확정성(Uncertainty)’을 서사의 중핵(中核)으로 하며, 마치 심연과 같은 그곳을 배회하는 화자가 존재 변이를 반복함으로써 서사가 구조화되고 있다. 화자는 신경질, 비난, 고독, 투정, 무력감, 우울, 두려움, 위안, 안도, 유쾌, 염기(厭忌), 난폭, 고독, 집념, 비애, 맹기, 쓸쓸함, 허무맹랑, 고독, 안심이라는 다양한 정념을 그 순서와 강도를 달리하며 표출한다. 화자의 존재변이는 방 안의 사물들을 마주하면서 관계적으로 형성된다. 작품 전반부에서 사물은 화자의 정념이 투사되는 수동적 존재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사물은 사건을 일으키는 능동적 행위자로 그려진다. 화자가 마주한 사물들은 아내와의 관계 및 아내의 외도에 대한 신경증적 주체의 분열을 가속시킨다. 이들은 외도에 관한 심증(心證)과 물증(物證)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의 심연(深淵)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나아가 사물은 화자로 하여금 사물의 비밀—사물의 역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케 한다. 화자에게 말을 걸며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때 ‘방’은 외도자 아내가 있던 공간이고 그곳의 사물들은 외도를 감시하고 목격한 주체들이다. 동시에 ‘방’은 아내와 화자의 연인 관계를 증명하는 공간이며 그곳의 사물들은 아내와 ‘나’ 사이의 사랑을 경험한 역사적 존재들이기도 하다. 화자의 정동과 행위의 변화는 이러한 사물의 중층적 속성으로부터 추동되었다. 화자는 아내 외도예의 불안과 사랑에 대한 욕망을 해결하고픈 나머지 감시와 애정의 동시 충족을 위해 방 안의 사물처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물의 쿠데타”에 투항(投降)한다. 그러나 사랑의 이상을 좇아 선택한 행위는 비극적 결과에 이른다. 아내는 사물이 된 화자로부터 애정을 느끼고 사물의 역사를 읽는 정동 능력이 약한 존재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자가 “사물의 쿠데타”에 기대한 효과로서 낭만적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은 실패로 끝난다.

이와 같이 소설을 읽는다면 소설의 사물은 1960-70년대의 산업사회의 물질중심주의적 현실을 반영하는 사물로만 읽히지 않는다. 물론 결말에서 화자의 사물 되기가 낭만적 사랑의 실패라는 비극의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놓고 보면 틀린 해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처음부터 그 사회문화적 현실을 사물의 비유를 빌려 비판하겠다는 목적으로 쓰였다 하기엔 사물의 성격이 다층적·다면적이다. 그리고 이에 연루된 주체의 정동 역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그 스펙트럼과 강도를 달리하며 불확정적으로 텍스트를 유동(流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의 방」에는 사물이 도구화된 객체로서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언어로 가득하다. 이는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간(間) 관계가 합리적·이성적으로 시시각각 인식해내지 못하는 삶의 역사, 추억, 감정을 사물이 환기하는 것이므로 사물이 ‘살아 있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사물들은 ‘사물을 마주하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존재 변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말을 거는 존재들이다. 인간의 정동적 능력을 묻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고려해 아내가 사물이 된 화자를 내동댕이치는 결말을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사물화로 해석하기보다 사랑이라는 행위에 필요한 정동적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해석해 텍스트의 끝이 발화하는 화두에 독자를 참여시켜 본다면 텍스트의 의미론적 층위는 확장될 수 있다. 문학을 비평하고 그 의의를 길어올려 해석적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면, 그 목적이 텍스트를 위한 심폐소생이라면, 확정적 결론보다는 심장(深長)한 물음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소설이 1960-70년대의 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속에서 쓰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텍스트로부터 사회문화적 증상을 발견하고 언어가 그 시대적 질병을 진단하는 방식을 드러내 보이는 분석—보고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작업들—은 탁월한 해석적 성

취의 면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자들의 작업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시 개발주도 담론과 신자유주의의 구조의 문제를 입체화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다’는 행위의 주체, 즉 텍스트의 정치적 무의식을 심문하는 분석자 역시 그 텍스트에 갈마든 사회문화의 구조와 그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평적 독자 역시 그 거대한 대타자의 질서 속에서 자랐고 존재해왔고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물을 “소외”의 결과나 “도구”로 보게만 하는 강박증적 시선 역시 우리 현대인 모두가 그 세계에 연루되어있다는 슬픈 증거로 비춰진다. 사물이 철저히 도구화되기만 하는 세계 속의 독자는 사물을 도구적 사물로 해석하도록만 하는 무한루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재현의 응축물로 굳어진 사물에 다른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중요한 까닭이다.³⁶⁾ 최인호는 어쩌면 그 미세한 가능성을 발견해 소설로 형상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연인 관계와 그 낭만적 사랑을 실패로 끝낸 최인호의 갈무리 방식은 그 비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물을 다시 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만약 이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면 우리 일상에 있는 사물은 단순히 유용가치나 도구, 배치된 정물만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관계론적·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날 때 사물의 기능은 연인이나 사랑을 환기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각자에게 모두 사물에 관계한 삶의 고유한 역사들이 있지

36) 본고에서 ‘사물’을 키워드로 비평과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래 한국사회에 소개되는 사물 관련 담론인 ‘신유물론’을 방법론으로 적극 차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소설은 신유물론이 강조하는 ‘사물의 행위성’만을 초점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밝힌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사물의 수동성과 능동성 모두를 껴안고 있으며, 이 두 양태는 사건의 우연성이 필연화되어가는 과정과 얽혀 있다. 두 긴장 관계를 무시하고 사물의 능동성만 강조한다면 이 소설의 구조와 문제를 무시하는 단장취위의 해석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사물이 ‘행위’한다는 특징에 천착해 생기적 신유물론—예: 제인 베넷의 이론—을 적극 대입해볼 수 있겠으나 이 관점은 토머스네일의 운동존재론적 신유물론에 의해 곧장 비판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응용되어야 한다.

않은가. 「타인의 방」을 오늘 날 다시 읽어야 한다면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은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경유할 때 한계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가령 본고의 독법을 수용하더라도 사랑에의 정동 능력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묻는 서술과 그 남성적 시선은 당연 도마 위로 올려질 수 있다. 본고 역시 작가의 한 무의식적 차원을 이해하기에 비판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는 다른 동료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독법은 「타인의 방」의 사물성을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제하는 과정 자체로서 새로운 질문이 되기에 충분할 뿐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최인호, 「타인의 방」, 『문학과지성』, 1971 봄호.
_____, 「타인의 방」, 『타인의 방』 (3판), 민음사, 2005.
_____, 「타인의 방」, 『타인의 방 - 최인호 중단편 소설 전집1』, 문학동네, 2002.

2.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김 현, 『김현문학전집 13: 김현예술기행/반고비 나그네 길에』, 문학과지성사, 1993.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빌렘 플루서, 김태희·김태환 옮김, 『사물과 비사물』, 펠로소픽, 2023
서종택, 「해방이후 소설과 개인의 인식: 서기원, 김승옥, 최인호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7.
_____, 『신과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관한 짧은 논문』, 서광사, 2016,
이재선, 「도시공간의 시학 : 도시화 현상과 도시소설」,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존 T. 조스트, 신기원 옮김, 『체제 정당화의 심리학』, 에코리브르, 202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 프로이트 전집9』, 열린책들, 1997,
필립 피셔, 백준걸 옮김, 『열정에 대하여』, 앨피, 2023.

3. 논문

-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 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289-314면.
김종욱,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환상과 정치적 무의식: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38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205-222면.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가족주의 연구」,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21, 295-335면.
김병익, 「60년대 의식의 편차」, 『문학과지성』 봄호, 1974.
김주연, 「산업문명 속의 소외와 복귀: 최인호론」, 『세대』, 1974.6.
_____, 「70년대 작가의 관점」, 『신동아』, 1974.11.

- 김지윤,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치수, 「한국소설은 어디에 와 있는가」, 『문학과지성』 가을호, 1972.
-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제5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47-278면.
-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현대문예비평연구』 제1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149-167면.
- 염수민, 「최인호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 분열 양상에 대한 수사학적 연구 - 공간 분열 양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 -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32집, 중앙어문학회, 2004, 249-270면.
- 우찬제, 「불안의 상상력과 정치적 무의식 —1970년대 소설의 경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119-146면.
-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183-202면.
- 장두영,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 나오는 아파트」, 『한국학연구』 제69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161-195면.
- 채호석, 「억압된 것으로의 귀환—사물화의 악몽을 묘파한 <타인의 방>」, 『문학사상』 3월호, 2000.
- 최상환, 「최인호 단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성윤, 「「타인의 방」, 「내 여자의 열매」의 소설 공간과 ‘변신’ 모티프」, 『어문론집』 제99호, 민족어문학회, 2023, 319-338면.
- 황도경, 「물화의 공포와 유희: 최인호의 「타인의 방」」, 『문학사상』 3월호, 1999.

4. 기타

- 교보문고 · 노태훈, 「「타인의 방」, 공간에 잠식당해 사물화된 현대인의 고독, 최인호의 : 6분 안에 듣는 고전문학 [6분 클래식], 2022.03.31.
<https://youtu.be/JbBOR2v3OrQ?si=XhB8wVNTS2c9lmt8>, (접속일자 2024.08.15.)

<Abstract>

“Coup d’État of Things”

– Reconstructing the Criticism on the Story *A Room of Other* of Choi In-Ho

Yoon, Jong Hwan

The story *The Room of Other*, written by Choi-In ho, had highly reputed from critics and the public alike for its sociological imagination to modern Korea had being industrialized in the 1960s and 70s. This story has been studied around the keywords of human alienation, loss of identity, fragmented individuals, and commodity fetishism under placeness of 'apartment', 'city', and 'Seoul'. In this regard, the protagonist who became a thing, a key event in the story, has also been interpreted only within objectification: an escape from reality, running away to imaginary world, or a failure of humanity. However, while reading closely, it is obvious that the things in this text do not function only as symbolic devices that reflec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period when it was written. Rather, things exist simultaneously as passive objects on which the narrator's affect(s) are projected to and as active agents with subject-status, and they are the main factors that drive the plot. With this respect, I strongly point out that the meaning and criticism on the thingness of *The Room of Other* would be reconstructed.

The plot of this story is proceeded by focusing on the protagonist's uncertain affect(s) driven by his suspects toward his wife's affair and is structured in such a way that the “he”, roaming around the abyss of affections repeatedly, experiences his existential variations by the affects.

These variations are fostered inter-relationally as the subject encounters the things in the room, the place where he and his wife's used to live together. In the first half of the narrative, which bifurcates by the “The Wife's Note,” the things are passive objectives into which the protagonist's affects including strong anxiety are projected, but in the second half, the things appear as active agents who address to him and cause events to occur. The things in the room are the “witnesses” of the wife's affair, stimulating the protagonist to roam between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of of the infidelity, and making him to experience the secret and life history of things, leading the narrative.

At the same time, the things are historical beings that have experienced and mediated the love between him and his wife. In order to resolve the anxiety from suspecting toward the wife and realize his desire for love, the protagonist surrenders himself to the “coup d'état of things,” transforming himself into a thing that is both a witness and a mediator of love. At the end of the story, although his wife meets objectified protagonist, her wife's ability to affect by the thing, feel love, and read its history is not enough, so the life of him ransformalized to a thing ends up with failure. This tragic ending, in which the protagonist's expectation of romantic love is not fulfilled by the “coup d'état of objects,” provokes the question of authenticity modern love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 well as if we can transform our existence via being affected by the life histories the things tell. As a result, the thingness of *The Room of Other* would be understood as characteristic that embraces objectification, an aspect of neoliberal industrial society, but also as an active force that triggers reflection on it keeping the potential to overcome and imagine beyond the reality.

Key words: Thingness, Objectification, Uncertainty, Affect, Romantic Love, Affair, Infidelity, Choi In-Ho, *A Room of Other*

투 고 일: 2024년 8월 20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